

스포츠를 통한 세계 선교 전략 연구*

이 정 기**

논문초록

본 논문은 당연한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적절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먼저 북위 10도에서 40도 구간의 선교난 지역에 속한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닫혀져 가는 선교 현장의 위기 속에서도 선교사역의 계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 선교사들의 시급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실제로 스포츠 선교가 전문인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귀중한 선교의 도구임을 다루고 있는데 가까운 이웃은 물론 국가, 인종,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어느 곳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의 매개체이자 대화의 접촉점을 형성해 주는 귀중한 선교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포츠 선교 전략적인 측면과 함께 먼저 스포츠의 개념과 선교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스포츠 선교의 의의와 목적이 무엇이며, 스포츠 선교의 방향과 전략, 스포츠를 통한 파급 효과를 다루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신분확보와 정착, 젊은 층과의 접촉, 제자 양육, 자비량과 재 파송이 용이함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선교의 귀한 도구로서 이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연구해야 할 것으로 마무리했다.

주제어: 선교, 스포츠, 전략, 전문인, 미전도 종족

* 본 연구는 2012년도 고신대학교의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고신대학교 특수선교학부 교수

2012년 01월 30일 접수, 03월 12일 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하나님께서 새 천년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 때가 되면 재림 주이신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到來)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 천년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총동원하여 마음껏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큰 명령이자 사랑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 이 같은 중차대한 사명(使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선교에 대한 전략(戰略) 부재로 뜻하지 않는 곳에서 유리(遊離)하거나, 전혀 현장감 없는 방법으로 시간만 낭비한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식어버린 가슴과 구태 의연한 선교 전략으로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선교지를 공략하기로는 참으로 요원(遙遠)할 뿐만 아니라 거둬 실망스러운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거시적(巨視的)인 안목으로 시시각각 급변하는 선교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반응과 전략들(戰略)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 없이도 약진(躍進)할 수가 있었으나, 21세기 세계 선교 현장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갈수록 선교지들마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안타까운 비보들(悲報)은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한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엄중한 대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인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만큼 적극적으로 면서도 겸손히 수종(隨從)되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선교를 향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제한시키는 나라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는 현실적인 위기와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의 득세(得勢)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대신 해서 저들에게로 갈꼬(사 6:8)”라며 애타게 일꾼을 찾고 계신다. 비록 척박한 선교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할만한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을 아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남은 땅을 향해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때에 본 연구에서는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세계 현황들을 파악하고, 점점 더 세계 선교 현상이 척박하고도 빠른 변화를 거듭하는 현장의 정확한 상황들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북위 10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포함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선교 현장들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교 사역 형태인 목회자 선교사들의 입국이 급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제 전문인 선교사들의 활동이 요청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 가운데 이전에 별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영역인 스포츠가 세계 선교의 좋은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스포츠 선교에 대한 이전의 선행 논문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조금은 생소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스포츠가 얼마나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효과적인 전략 사역임을 언급하고자 한다. 더 나가서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선교 사역의 방향성과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 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전략들을 보다 더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세계 선교 동향과 미전도 종족의 영적 도전

1. 세계 선교 동향

풀러 신학교 제 3대 선교대학원장인 폴 피어슨(Paul. E. Pierson, 1998: 1-2)은 “21세기 선교동향(Trends in Mission in the 21st Century)에서 국제화의 이면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suffering people)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10억 명의 인구가 하루 생활비 1달러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25%의 인구가 저(低) 영양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난민 중 62%가 사하라 남아프리카, 남중아시아,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전쟁, 재난, 종교, 정치적 이유에 근원한 것이며, 식량 불안정과 보건위생의 문제, 신변의 위협, 여성인권, 어린이 교육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일명 ‘Yellow Window’ 지역은 기아, 만성 영양 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고통 받는 식품, 영양의 상대적 저(低)개발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의 90%가 분포해 있는데 반해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되고 있는 창의적 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선교적인 과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절박한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부터 단혀져 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 세계는 타종교의 득세(得勢)와 어두운 영들의 도전으로 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있다. 마치 중동과 중국 곳곳에서 발원(發源)하여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막의 황폐함이 온 세계를 덮어 버릴 기세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웅크리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부합된 적절한 전략(戰略)으로 정공(正攻)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미 세계가 주시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였고, 현재 한국 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주도적 위치에 있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덧 선교사 파송 규모에 있어서도 선교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선교 강국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선교사의 숫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비하여 아직도 크게 뒤떨어져 있다(이태웅, 1994: 76). 무엇보다도 선교학적인 과제(課題)는 아직도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선교사에 대한 인식(認識) 부족과 전략(戰略) 부재이다. 특히 선교사라면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로 제한시키거나 저들에게만 거는 기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세계 선교 동향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연유다.

현재 전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선교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연구하고 이제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비기독교 인구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둘째로는 전통적 의미의 선교사들인 목회자들의 입국 비자(visa)를 거부하는 국가와 종족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24,000개에 달하는 다양한 문화 종족들 중에 최소 약 11,000개의 종족 집단이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초문화권 지역에 살고 있다. 21세기에는 비기독교 인구의 83%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목회자 선교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전 세계에서 기아와 빈곤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1분마다 어른 6명, 어린이 18명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1/5이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통계다. 넷째로는 전 세계가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은 여전히 고립되고 있다. 그래서 경

제적으로 상호 의존 할 뿐 아니라 교육, 전문 기술의 상호 개발 교류, 빈번한 여행, 회피 수단인 이민, 핵무기, 환경오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등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인데 반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인 소수 목회자들만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가 명하신 이 엄청난 선교적인 과업(課業)을 완수하기에는 참으로 요원(遙遠)할 수밖에 없다(강승삼, 1998: 118-119). 뿐만 아니라 한 때 선교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군도 등 소위 제 3세계라고 불려 지던 곳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선교국과 선교지가 따로 없고, 어디든지 선교가 필요한 곳이 되었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 공산권 등 선교의 진전이 더딘 지역이 중요한 타문화권 선교지로 남아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날이 갈수록 이젠 유럽 등 서구 지역 역시 선교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세계 선교 동향 중 또 하나의 특징이다.

지난 1900년대만 해도 제 2/3지역에서 지속적인 교회성장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이 눈에 띄게 상승 곡선을 형성했다(John A. Siewert and Edna G. Valdea, 1997: 32). 지난 2007년 중반 이후의 통계에 의하면 약 6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약 21.35억이었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 약 33%에 해당한다. 각 종교별로는 모슬렘 13.3억, 힌두교 8.7억, 불교가 3.78억인데 그 중에 불신자는 최소 약 11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은 겨우 약 7억 명으로 나타났다(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 1998: 27). 앞으로 2025년까지 세계 인구는 83억 1천 200만이 될 것인데 그 중에 49억 3천 900만 명이 아시아에, 15억 1천만 명이 아프리카에, 7억 4천 300만 명이 유럽에, 7억 600만 명이 라틴 아메리카에, 3억 7천 500만 명이 북미에, 그리고 3천 900만 명이 오세아니아에 살게 될 것으로 본다(Myers, 1997: 29; Barrett, 1999: 24-25). 이러한 인구 증가와 함께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성장세와 변화 구도를 우리는 깊이 주시해야만 한다. 갈수록 모슬렘을 비롯한 타 종교의 가파른 인구 성장과 도전은 전 세계 선교의 변화와 판도를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선교의 장애물 중 하나였던 공산권의 붕괴로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활짝 열려졌고, 지금까지 무시되어지던 미진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선교가 활발히 시도 될 때에 놀라운 결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인구 구조가 도시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 2/3세계 교회들이 세계 선교 사역에 동반자로 참여하고, 적지 않은 양질(良質)의 선교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도 21세기 선교의 지속적인 성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이지만 서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의 커다란 경제적 성장도 여전히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 1998: 27). 고무적인 현상은 이미 미주나 유럽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과 전략(strategy)들도 함께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변하는 선교 현황을 감지해 내는 감각이 아직은 무딘 정서이다.

이 시대의 상황(context)과 성경(text)적인 관계에서 전 세계 선교 전략(戰略)은 이 전보다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R. J. Schreiter, 1985). 그래서 무너진 세계 선교현장 곳곳을 부지런히 수축(修築)하고, 주의 복음의 진지를 재구축(再構築)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2.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의 영적 도전

21세기 이후 가장 부각된 선교적 관심 영역은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라 하겠다.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에 대한 개념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복음주의 세계 선교 대회에서 랄프 윈터(Ralph D. Winter, 1924-2009)가 주창한 것으로서, 이는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1897-1991)의 감추어진 부족(hidden people group)의 개념과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트(William C. Townsend, 1896-1982)가 주창한 감추어진 언어 그룹(hidden linguistic group)의 개념을 종합한 것이다. 즉 감추어져 있어 전도되지 않은 종족의 개념으로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의 단어를 정립하였다. 또한 윈터(Winter)는 이러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에 대한 선교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연구와 전략적인 선교에 대해 강조하였다(신성주, 2010: 1-2). 전 세계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들의 숫자가 21세기에는 약 2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즉 아무리 수고와 땀을 흘려도 ‘좀처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전혀 시작도 헌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점점 더 세계 선교사 파송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동을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등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여전히 전체의 17% 밖에 되지 않음으로 전략적인 선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강승삼, 2007). 이슬람권 국가들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마 28:18-20)”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 실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선교는 현재 한국교회가 시급히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옛날 마게도나 사람처럼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도우라(행 16: 6-10)”고 직접 손짓까지는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 만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달려가 품어야 한다.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이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을 빼고는 논의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임무 앞에서 다시 한 번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을 향한 우리의 절절한 관심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교회들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는 모든 나라와 교파, 단체를 초월한 적극적인 동역과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데이빗 바렛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전 세계의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 시킬 만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중복’과 ‘경쟁’이라는 난제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종료시키지 못하는 이유이다(David B. Barrett and James Reapsome, 1988). 즉 중복과 경쟁을 피하는 것이 미전도 종족(the Unreached People Group)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이다. 이러한 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이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현재 이 전략의 시급성을 인식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단체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과 기꺼이 네트워킹(networking)도 시도하고 있다(Patrick

Johnstone, 1993: 13).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과학적인 혜택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하면 생활의 실제적인 빈곤 가운데 아사자(餓死者)들도 속출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전혀 인간적인 대접은 커녕 삶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박탈 당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참혹한 영적 황무지라는 점이다.

III. 전문인 선교의 역사적 고찰과 선교의 필요성

1. 전문인 선교의 역사적 고찰

(1) 초대교회의 전문인 선교

오순절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처로 흩어져 수많은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헨리 채드윅은 초대교회가 선교 정책상 도시 지역을 먼저 목표로 삼고 전했고 점차 교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되는데 이 때 집사들을 파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저들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김성욱, 1999: 44). 뿐만 아니라 라트렛은 초대 교회의 확장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역자들이 세속 사회에서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김성욱, 1999: 45). 또한 헨드 크래머(1963: 29)에 의하면 “평신도는 비 그리스도교 국가에서의 선교활동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은사를 발휘하여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선교적 사명에 참여해 왔다.”고 한다.

이처럼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1800년대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나라와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다.

(2) 1600년도 이후의 전문인 선교

1600년 이후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1732년에 시작된 모라비안인들의 선교사들을 들 수 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서인도 제도의 성 도마섬에 사는 흑인 노예들의 비참함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두 명의 자원자는 도예공인 레온하르트 도베르(Seonhard Dober)와 목수 데이빗 니취마운(David Nischmaun)이었다. 그 후 모라비안인들은 계속해서 그린랜드, 서인도 제도의 성크로섬, 수리남(1735), 안티카(1756) 등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1732년에서 1760년 사이에 2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10개의 선교지에 들어갔다(크리스티 윌슨, 1989: 41). 그런데 그 때 파송 받은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농부와 기술공이었다(스티븐 니일, 1980: 297).

(3) 19세기 전문인 선교

라트렛이 19세기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라고 했을 만큼 많은 선교 활동이 있었으며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19세기의 전문인 선교사의 한 사람인 요한네스 업데(Johannes Emde)는 1811년도에 시계 제조 공으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 자바 여자와 결혼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결과로 1843년에 35명의 회교도들을 개종시켜 목사에게 세례를 받게 하였다(크리스티 윌슨, 1989: 45). 스위스 바젤 선교회도 베 짜는 숙련공을 인도로 파송하여 자비로 선교하게 했으며 가나에는 농부 선교사 세명을 파송하여 코코아를 재배하게 했다.

허버트 케인은 19세기 선교사들의 업적에 대해 “19세기의 선교사들은 특별한 남녀들이었다. 그들은 인도에서 조혼, 순장, 성전의 창녀 활동, 천민에 관한 것과 중국의 아편 중독, 어린이 유기, 아프리카의 일부다처제, 노예무역, 쌍둥이 살해 등의 사회악을 퇴치하였다. 또한 저들은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역했는데 학교, 병원, 보건소, 의과 대학, 고아원, 나병 치료소를 설립하였다”고 평하고 있다(크리스티 윌슨, 1989: 133).

(4) 20세기의 전문인 선교

1, 2차 세계 대전으로 선교가 잠시 주춤했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선교회들이 많이 설립되었다. 루스 터커는 이러한 선교 분야의 전문화가 촉진된 이유로 미국의 모든 분야가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며 더 직접적인 동기는 선교사의 전문화를 통해 영적인 사역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루스 터커, 1993: 423). 193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전문인 선교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50년에 들어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가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아시아 지역은 주로 공산주의의 정치 형태를 따르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많은 나라들이 선교에 대해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중심으로 일부 나라들은 힌두교를 신봉하는가 하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슬렘 땅의 견고한 선교의 장벽은 많은 다양한 전문인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2.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문인 사역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A.D. 46년부터 A.D. 48년까지 약 3년간 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 제1차 선교여행 시에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에서 전문인 선교사역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는데(행 13:1~14), 이 때 사도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고전 9:6)고 말하고 있다.

역시 제 2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에도(행 15:40-8:22)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8장 3절의 천막 만드는 일(Tent-making)을 했음을 보면서 삶 속에서 일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10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깨우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현지인들과 똑같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노동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함이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은 매주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일하는 작업장에서는 정오의 긴 휴식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상적 생활을 통해 본을 보임으로써 복음을 증거 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살후 3:7-8). 그는 가르침의 진실성과 개종자들에게 상전에 대한 종의 태도의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서 노동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일했던 것이다(엡 6: 5-9, 골 3:22-23)(Ruth, 1999: 31).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기간(행 18:23-21:14)에도 저들과 함께 호흡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동일하게 노동사역을 선교의 중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는데(행 20: 31),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성도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때 사도 바울은 즉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서신을 발송했는데 그 편지 내용에도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고전 4:11-12). 이 같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친히 손으로 노동하며 생계를 유지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제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하면서 그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불러 모은 뒤에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탁 속에서도 먼저 자신이 생활 가운데서 노동으로 자립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는지를 증거 하기도 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2-35).” 사도 바울의 제 3차에 걸친 선교여행 전반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노동 현장에서 일부러 직업적인 일을 하면서 복

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다. 굳어버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이 전문인 사역은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강조했고, 이를 토대로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전문인 선교사의 필요성

룻 시멘스(Ruth E. Siemens, 1999: 29)에 의하면 이 시대 전문인 선교사의 성경적인 정의를 “타 문화권에서 직업과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저들은 타 문화권에서 성직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그의 헌신, 소명, 동기, 훈련 면에서 분명히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임선교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부르심을 입은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선교학적인 측면(側面)에서 볼 때 이제는 선교의 난(難) 지대인 북위 10분의 40창에 포진되어 있는 불교권, 회교권, 이슬람권, 공산권 지역에 선교를 집중해야 할 때다. 이곳은 일반 정통적인 목회자들의 입국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혹 입국한다 하더라도 기존 선교의 정통 양식인 목회적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남아있는 이 선교 현장을 부지런히 개간(開墾)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이러한 작금(昨今)의 현실을 볼 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시대는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 못지않은 영성을 지닌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이 요청된다 하겠다. 즉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과 아닌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끄집어내어 현지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 형태이다. 이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 선교사들도 하나같이 사역의 우선순위에 둔 것은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이 아닌 고아원과 양로원, 학교를 건립하여 실제 생활의 필요에 관심을 두면서 다양하게 섬겼었다. 이처럼 비록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진 않다 해도 신실한 전문인 사역자들이 나가서 진정한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 달한 국가와 영혼들을 향해 보다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전문인 사역은 우리가 스스로 창안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배 선교사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을 모델(model)로 제시 하신 것이다. 다시 한 번 최선의 위치에서 이 전문인 사역을 구사(驅使)해야 할 만큼 중요한 전략(strategy)이다. 이제 이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을 향해 마음껏 기대하며 기도로 지원해야 할 때이다.

현재 세계 인구 중 17억 5천여 명이 그리스도인이며 약 36억 5천여 명이 비 그리스도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비 그리스도인들이 약 40억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선교 학자들을 보고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세계 인구 중 2/3가 창의적 접근 지역 즉 선교사 입국을 거부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 특히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대부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접근 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전문인 선교사들의 필요가 절실하다. 전문인 선교사의 재발견은 시대적인 필요와 요구에 앞서서 성경적인 요구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전찬섭, 2001: 9-10) 오늘날 세계 선교사의 85-90% 이상이 전문인 선교사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교회들은 평신도들이 단지 선교 후원자로서 인식되기보다 미전도 종족을 향한 전문인 선교사들로 보내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윤동주, 1994: 5). 좀 더 효과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1) 늘어나는 접근 제한 지역들을 선교하는데 효율적이다.

현재 이 지역들은 면적상으로는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3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3을 차지하며 인구수는 40억에 육박하며 60개 이상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세계의 가장 비 복음화 된 50여개의 국가 중에서 37개국만 바로 10/40창 지역에 살고 있다(박성호, 1998: 21). 과거에는 복음 사역에 대해 이미 문을 열고 있는 나라들이나 국가, 혹은 종족이나 부족들을 상대로 선교하면서 닫힌 나라 즉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 1차 로잔대회가 열렸던 1774년에 약 33개국에서 제 2차 로잔대회가 열린 1989년에는 86개국 가량으로 늘어났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천년의 경우에는 선교 대상국의 90%이상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선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피네기, 1-2) 이러한 국가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선교 전략이 전문인 선교이다.

(2)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들의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모슬렘과 같은 타 종교의 인구 증가 또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의 불신자들의 인구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선교 정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불신자의 수는 매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다. 기존의 목회자 중심의 선교는 한계가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99.5%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어날 때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다. 전문인 평신도의 개발을 통한 전문인 선교는 비기독교 인구 성장에 대처하는 이상적인 선교 전략이다(이득수, 1991: 14).

(3) 급변하는 시대적인 요구이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의 상황이 전문인 선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 탈식민주의, 민족주의, 동양 종교의 부흥, 도시화, 세속화, 산업화, 교육열 등이 전문인 선교가 정식 선교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30년의 역사도 채 안 되는 약 120개의 신생 국가들이 그들의 개발을 위한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생 국가들과 기타 전통 있는 제 3세계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종사 할 수 있는 직종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러한 전인 사역은 미전도 원주민 부족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문명 퇴치, 식량 지원, 사회 개발,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병행된다. 그 직종들은 현재 그 국가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직종들이기에 이러한 직종의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이득수, 1991: 14).

4. 전문인 사역에 대한 현장의 실제적인 보고

세계 곳곳에는 전문인 선교사들의 활발한 사역으로 인해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를 발표 하고자 한다.

(1) 러시아에서 태권도 전문인 사역

지난 1990년도에 73년 동안 묶여 있는 동토의 땅 러시아는 정교회와 모슬렘이 종교적인 울타리를 구성하고 있어 복음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들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더 큰 핍박이 몰려오는 추세이다. 더불어서 물가들이 엄청난 속도로 상승 곡선을 형성하고 있기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역을 펼치는 일반적인 목회 사역이나 신학교 사역에는 적잖은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강한 만큼 온 국민들의 열기와 함께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한국 국기인 태권도 선교사들을 위시해서 스포츠 선교사들을 종교를 떠나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1994년도에 파송 받은 임국현 선교사는 그곳에서 약 2-30여개의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저들에게 운동 중에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함으로써 인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할렐루야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전 러시아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 청소년들까지 초청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각국에서 초청 받은 청소년들에게 개·폐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놀랍게 전하고 있다. 현재 파송 받은 스포츠 선교사들은 올림픽 위원회에서 발급받은 비자로 활동하며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전문인으로서 공신력 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 태국 땅에서 양돈을 통한 전문인 사역

태국 땅은 소수 종족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땅이다. 저들은 깊은 산속이나 골짜기에서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전혀 이 시대의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불쌍한 저 영혼들을 대상으로 문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다. 지난 15년 전에 고신 총회 파송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고선재 선교사는 전혀 21세기의 현대 문화와 과학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는 젊은이들을 마을로 데리고 와서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양육하여 재파송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저들이 다시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립적인 삶도 가능한 새로운 기술까지 가르쳐 줘야 한다. 그래서 고 선교사는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 못지않게 자립

적인 삶의 방법과 전문적인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으로 양돈하는 비법을 지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새롭게 꾸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3) 필리핀에서 침술을 통한 전문인 사역

전성수 선교사는 실버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침술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지들 가운데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서 위급환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들이 많다. 필리핀 역시 오지나 시골로 들어가면 치료 받기가 쉽지 않은 낙후된 의료 시설이나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는 침술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일날에는 예배 후에 침술 사역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이들이 달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치료 받는 귀한 소식들을 듣고 있다.

(4) 아프가니스탄에서 태권도를 통한 전문인 사역

오랜 전쟁으로 슬픔과 눈물의 땅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힘겨운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있다. 우리나라와도 몇 년 전에 단기 선교 팀의 활동 가운데 순교 소식과 함께 불편한 관계에서 모든 교민들의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후 오랜 시간 복음 선교사역 자체가 일체 금지된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아프가니스탄 나라 건국 이래로 올림픽에서 처음 메달을 획득하고는 모든 국민들을 소망과 행복으로 다시 한 번 흥분케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태권도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권도 동메달 리스트를 배출한 사람이 한국의 H 선교사였다. 그는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은 다양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더 나가서 5대양 6대주에서 다양한 전문인 선교의 영역에서 컴퓨터 사역자로, 의사나 간호사의 직업을 갖고 병원에서, 또는 교사나 상담자, 혹은 찬양 사역자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젊음과 인생을 걸고 경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세계 선교 현장에서 전문인 선교사들의 요청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임으로 앞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V. 스포츠 선교 전략

1. 스포츠의 개념

21세기를 흔히 ‘몸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래서인지 물질문명과 황금만능을 강조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병약한 부자보다는 건강한 가난뱅이가 낫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잖다. 이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스포츠를 언급하고 있다(김정설, 박관수, 2002: 13).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스포츠(sport)’란 용어는 ‘체육’이란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하남길, 2002: 80).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전환 한다’는 뜻의 중세 영어의 동사 ‘sporten’이나 ‘disport’ 혹은 라틴어 ‘disporture’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이 말은 ‘방향전환’ 또는 ‘port(나르다)’를 확대 해석한 기본 의미와 오락(Recreation), 싸움(disputes)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임승현 외, 2009: 114). 또한 고대 프랑스어인 desport에서 유래된 말은 ‘즐겁게 놀다, 일을 중지하다’라는 파생어로도 알려져 있다(신성휴, 한왕택, 1993: 14). 스포츠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스포트(sport)와 게임(game)을 유사한 용어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특히 스포트(sport)는 왕실과 귀족들의 동물 사냥과 낚시를 비롯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뜻했다(졸저, 1996: 2장 참조).¹⁾

이 시대 넓은 의미의 ‘스포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로 여러 경쟁 스포츠들과 함께 전통적 민속놀이, 낚시, 요트, 사냥, 하이킹, 등산 등을 의미하는 가하면 비경쟁적인 레저(leisure) 스포츠들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엄연히 좁은 의미에서는 ‘경쟁적인 신체 활동의 제도화된 형태’로 정의 할 수 있다. 결국 종합적인 스포츠의 정의라면 ‘제도화 되고 경쟁적인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과 정신 활

1) 그리고 스포츠맨이 사냥꾼의 개념으로 사용된 실례는 토마스 휴즈(Thomas Hughes) 지음, 하남길 줄역, 『머스큐러 크리스천: 톰 브라운의 확장 시절』(서울: 21세기교육사, 1999)에 잘 나타나 있다.

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임승현 외, 2009: 114). 즉 신체를 통해서 건강한 정신과 삶까지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의 좋은 방향이자 목적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계 문명이 발달된 현대 생활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몸을 적게 사용하고 활동하는 만큼 운동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 소위 운동 부족 병에 걸려 있는 것이다(하남길, 2002: 97).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 개별성과 환경에 맞는 체육 활동을 선택하여 반드시 생활해야 할 만큼 스포츠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하남길, 2002: 98). 인간은 누구나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건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이 주어지지 않는 법이다. 인간은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도 성실하게 운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참 중요하다.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스포츠는 각국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매체가 올림픽(Olympic)이다. 문화와 언어, 민족의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의 만남이 스포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올림픽(Olympic) 정신이기 때문에 참으로 가치 있게 평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올림픽을 통해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친선, 평화, 우호의 증진을 추구하는 교두보 역할도 한다(하남길, 2002: 442).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나아가는데 있어서 스포츠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선교의 정의

선교란 단어는 영어로 mission이다. 이것은 라틴어 미토(mitto)에서 나온 것으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의 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김성환, 2007: 45). 또한 선교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응답하는 길이다. 더욱 구체적인 선교는 ‘교회에서 파송된 복음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가서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과 집단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활동’을 뜻한다(김혁민, 2006: 57).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맡겨진 선교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참으로 귀한 사역이다.

결국 선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교회의 내재적 사명이다. 선교 활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선교를 통하여 흠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돌아오도록 도와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열정을 다해야 한다(김혁민, 2006: 66).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마음껏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민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모든 족속들은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중재, 2005: 45).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스포츠 선교의 의의와 목적

(1) 스포츠 선교의 의의

스포츠 선교란 주님의 최후 지상명령인 복음전도 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맨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체육 프로그램을 매개체(媒介體)로 하여 활동하는 모든 총체적 노력을 뜻한다(강신경, 1999: 46). 일반적으로 스포츠 선교 사역의 목적은 스포츠를 매개체(媒介體)로 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교제(Fellowship)하면서 복음 전도(Evangelism)와 제자화(Disciple) 등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스포츠 선교 방안은 스포츠를 통하여 모여지고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케 하며, 경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남녀를 모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김기환, 2008: 26). 오늘날 우리는 각종 매스컴(masscom)을 통해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특이한 장면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승리하는 순간에 즉시 그라운드(ground)에서 무릎을

꿨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또는 올림픽이나 중요한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시상식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들이 스포츠 선교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 근간(根幹)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간혹 이러한 모습이 비취질 때는 다소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많은 기독교 스포츠인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믿음을 승리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여러 영역에서 많은 부흥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이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본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매개체(媒介體)가 스포츠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다. 그러므로 이제 스포츠 선교를 통해 지구촌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복음의 단편 국가들까지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보다 더 쉽게 침투해 들어가서 복음의 포문을 열고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각 도시들과 나라들에 대해 복음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으로 스포츠 종목인 경주하는 모습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적 행위를 당시 ‘경기의 전령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의 사역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음도 흥미롭다. 바울이 당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잘 된 경기장의 전령자의 위치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것같이 오늘의 경기장인 선교 현장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며,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쫓대삼아 달려가고, 싸우고, 씨름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온통 스포츠와 관련된 선교를 언급하고 있다(최호영, 1995: 37). 우리는 이 시대에 어찌면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는 열심과 감격으로 이 스포츠 선교를 잘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의 선교의 목적

요즘 국제 정세는 올림픽 경기가 너무나 과열된 나머지 약물 복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 구도로 가는가 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는 스포츠의 가치(價値)와 이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영무, 1991: 8). 근대 올림픽에서는 스포츠에 대해서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감행

되는 수많은 스포츠의 자태(姿態)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과 결과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성 상실과 마비되어 버린 양심으로 인해 원 스포츠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특히 몇몇 인기 있는 종목에서 배출되는 스포츠 스타(star)들만을 심심찮게 우상화 하거나 묘한 분위기를 조장하는가 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통해 메마른 땅을 더욱더 갈증 나게 만들고 있다. 누구나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또한 기꺼이 승자를 향해서는 감동 속에서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또 패자에게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줄 수 있는 풍토(風土)가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결국 스포츠를 통해 누구나 스트레스(stress)를 해소(解消)하여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줌으로서 자신과 가정, 국가를 밝게 세워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인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포츠의 원 목적이다. 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영육을 잘 관리함으로 인하여 종래에는 세상 열방 가운데 거룩한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스포츠 인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더 나아가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우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거함과 동시에 자신의 제자들과 또 스포츠를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결국 이것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세계 선교에 깊이 기여할 수 있도록 바른 사역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스포츠 선교의 방향과 전략적 접근

오늘날 그리스도들은 스포츠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선교의 방법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며 건강한 여가생활을 안내하며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자신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등 많은 효과와 특별히 선교를 위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스포츠 선교는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좋은 방법이란 사실이 초 교파적으로 많은 교회들에게서 검증되어졌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스포츠선교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연령, 성별에 맞게 적용할 때 무한한 선교의 가능성과 교회부흥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1) 스포츠 선교의 방향

시대적인 정서와 세계화에 맞게 선교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선교이다.

지금은 각 나라마다 인종과 언어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정치적, 사회적 대립은 날로 심화되어 자국의 이권(利權)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경쟁과 분재(分財)의 불씨들은 대화의 경직을 가져왔고, 문호(門戶) 개방을 꺼리면서 폐쇄적인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과 현실 속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과 전도의 사명을 준행함에 있어 스포츠를 통한 선교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라는 운동 경기는 이념과 사상 등을 초월하여 승리의 목표 아래 한곳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는데 강점을 갖고 있다(조종남, 1987, 43). 즉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이고 금방 관심도 집중 시킬 수 있는가 하면 세계 각국 선수들과의 만남과 접촉도 가능하다. 그래서 스포츠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현대 선교의 가장 좋은 매개체(媒介體)라고 할 수 있다(김상복, 1990: 12). 현재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도 다양한 종목을 즐기는 이 시대인 만큼 이 스포츠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과도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접착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전략(戰略)들이 잘 구상되어진다면 영적 추수의 기쁨은 배가(倍加)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발(開發)되지 않은 이 스포츠 영역을 선교 학자들과 스포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깊이 연구한다면 마지막 때에 영적 황폐함이 짙은 땅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보다 더 아름답고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엄청난 보고(寶庫)들이 이 스포츠에 담겨져 있고, 또 스포츠 선교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정통적인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모든 영역의 전문인 선교사들과 함께 풍성한 선교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본다.

(2) 스포츠를 통한 선교의 전략적인 접근

흔히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군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축구 이야기’이며, 마지막 하나는 ‘군대에서 축구를 이야기’라고 한다(최정기, 2010: 6). 그러나 지난 남아공 축구 월드컵(World Cup)을 지나면서 온 세계 지구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통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환호와 스릴(thrill)을 넘나들며 모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는 이제 스포츠가 지향하는 원 목적을 뛰어넘어 하나의 전쟁을 연상케 할 만큼이나 스포츠가 국력과 직결되고 있다. 소위 올림픽에서 메달을 얼마나 획득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위상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냉전 시대에 최강국이었던 미국과 소련 때부터 그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양국은 늘 올림픽에서 라이벌(rival)로 일컬을 정도로 양대 축을 구축(構築)하며 설전을 펼쳤는데 마치 총칼 없는 양 대국(大國)간의 전쟁을 방불케 했으며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는 부러움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미국과 소련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세계 양대 축을 구축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어찌면 이전보다 더 강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열에 최근 스포츠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합류했다. 약 2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는 중국 정부가 스포츠 육성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과 비례해 메달 수가 늘어나면서 국가 위상(位相)이 떠오르는 별처럼 빛나는 것도 결국 스포츠와 국가 신뢰도와의 지표(指標)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매 4년마다 펼쳐지는 올림픽과 축구 월드컵은 전 세계 국민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이나 강한 파워(power)와 조명을 함께 받고 있다.

① 스포츠 모임을 통해서 선교의 접촉점으로 활용한다.

스포츠를 고작 일반 교회의 성도들의 게임(game)이나 레저(leisure)활동 정도로 여기고 끝내서는 안 된다.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 선교는 우선순위를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 27)는 말씀에 충실하면서 그들을 한 공동체의 지체로 삼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혹 아직도 일부 보수교단과 선교사들

은 스포츠를 통한 전도와 선교를 아직도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신체 활동의 장점을 인정하였고, 스포츠 활동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종교 개혁 이후 개혁자들도 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권장하였다. 당시 스포츠는 음주, 도박 등의 퇴폐 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代案)으로도 제시될 정도였다. 이 시대는 스포츠를 통한 전도와 선교가 매우 효과적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이고도 넓은 시야로 접근하여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타 문화권에서 사람들과 함께 교감을 이룰 수 없는 매개체가 그리 많지 않는 시대를 감안할 때에 충분한 도구로서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기독교인 스포츠 스타(star)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확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수들을 잘 발굴(發掘)해서 이들을 통해 선교의 교두보(橋頭堡)로 삼는 전략(戰略)을 세운다. 기독교인 스포츠 스타(star) 한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나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수많은 크리스천 선수들이 각 종목의 최정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얼마나 요동치게 했는지 모른다. 저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동안 전혀 믿지 않았던 수많은 언-크리스천(un-christian)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이영표, 송종국 선수들을 포함한 수많은 기독교인 축구 스타(star)들의 눈부신 활동은 월드컵을 전후해서 적잖은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문대성 선수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의 장미란 선수의 마지막 결승 장면은 수많은 영적 메시지를 던져주기에 충분한 한편의 드라마(drama)였다. 세계 최고의 기량들을 겸비한 상대 선수들을 화끈하게 제압하고 마침내 결승전에도 완벽하게 승리한 직후에 바로 그 매트(mat)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장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영적인 도전을 고동치게 만들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런 걸출한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의 선봉에 세운다면 좋은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다. 이제 세계 정치, 인종, 문화, 종교의 국경선을 뛰어넘어서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겸비한

젊은 스포츠 스타(star)들을 많이 육성해야 할 것이다.

③ 스포츠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한다.

한 명의 지도자는 다수(多數)의 제자들을 거느릴 만큼 적잖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 각 시합에 임하는 팀들 중에는 지도자가 신실한 크리스천 일 때 그 팀 전체가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오는 것을 어렵잖게 목도 할 수 있다.

현 탁구 국가 대표 팀 감독인 현정화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현정화 감독으로 인해서 현역 국가 대표 탁구 선수들 전원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던져준다. 또 전 축구 국가 대표 팀 감독이자 수원 삼성 축구단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매 경기 전후에 조용히 벤치(bench)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방송 매체를 타고 전 세계를 뒤덮던 감동적인 모습 역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해외에서 스포츠 선교의 문을 연 대표적인 종목은 태권도였다. 수많은 크리스천 태권도 사범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태권도를 통하여 친교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나아가 선교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축구 사역 역시 특성상 경기를 단 한 번 갖기만 하여도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매우 친밀해 지는 특성이 있다. 축구 선교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경기 전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의 만남까지도 접촉점이 쉽게 형성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있어 많은 유익함이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축구는 모두가 좋아 하는 만큼 국내외를 떠나서 국가 간의 친선경기를 통하여 선수들과 응원단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커다란 장점도 있다. 이 축구 활동을 통하여 맺어진 친분을 매개로 하여 선교 팀이 주최하는 부흥 집회에 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지난 1980년 후반부터 창단된 국내의 유명한 할렐루야 축구단의 활약상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타국과의 친선 경기를 가질 때에 축구를 좋아하는 이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데 참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축구로 선교하는 주승규 선교사(임수택, 2010: 258)의 활동을 보더라도 선명하게 이 스포츠 선교의 저력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다. 그가 이끄

는 아마 축구팀을 보면서 스포츠 선교가 단시간에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장기 선교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의 출신 나라를 보면 그 다양성에 놀라게 된다. 감독은 주승규(한국)이고, 골키퍼는 우즈베키스탄 선수다. 그리고 수비수는 카크이쇼(중국), 마사노리(일본), 브라드(세르비아), 텐(중국)인 반면에 미드필더는 니게루(포루투갈), 코켄(중국), 아드리안(브라질), 엑스(캄보디아)이고, 마지막으로 공격수는 다루(캄보디아)와 미루사도(보스니아)이다. 12명의 팀원들을 보면 그 중에 9명의 선수들은 출신 나라와 민족성이 다르다. 유럽 남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연합하여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매 주 만나 친근하게 교제하며 지상명령을 이루는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스포츠가 제공하는 즐거움 때문이고, 그것은 그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명백한 도구적 특성을 보여준다. 페루에서도 한명의 국가 대표 감독을 지난 정철용 배구 감독은 배구를 통해서 늘 많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명의 변화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이들을 충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④ 스포츠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

이 시대는 스포츠가 교회 부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한 전략 또한 어쩔 수 없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진 이 때에 교회 부흥을 통해 그 역량을 모아 남아 있는 선교지를 함께 집중 공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신자를 교회 안으로 초청하기에는 적잖은 시간과 어려움이 제기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스포츠 축제로 인해서 저들과 교회가 아닌 운동장에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 사역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 스포츠 선교가 전통적인 교회 부흥 방법론에서는 크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점점 더 여가를 즐기려는 현대 생활에서 스포츠를 통한 선교방법에 기대를 가지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에게 친근한 스포츠를 통해 기독교를 알리므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선교방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스포츠 선교는 건전하고, 몸과 마음에 유익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스포츠는 분명 교회가 필요로 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선교 방법 중 하나이다. 스포츠 선교는 사회적 공감대로서 스포츠 문화에 적절한 선교적 도구로서의 대외적 측면뿐만 아니라 선교 공동체로서의 성경적 교회론을 실천하는 적절한 목회적 도구로서의 내부적 측면도 공유하고 있다.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며 건강한 여가생활을 안내하며 소외계층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자신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등 많은 효과와 특별히 선교를 위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⑤ 협력과 팀 사역을 구축한다.

다양한 전문인들과 함께 협력, 혹은 팀 사역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팀을 이루어 협력해야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며 선교사들 모두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사역을 할 수 있다. 모든 선교사들이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사역의 접촉점을 형성할 수 있는데 모두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은 참으로 현장에서 귀한 접촉점을 형성함과 동시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혜립, 2001: 14). 마치 프로 축구팀의 11명이 그라운드(ground)에서 경기에 임할 때 유기적인 움직임 속에서 전략적으로 공수(攻守)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선교적인 방향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 다양한 사역들을 설계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편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전략으로 누룩처럼 현장을 변화 시켜 나가는 실제적인 싸움만이 승산이 있다.

5. 스포츠 선교를 통한 효과성

경제 원리 가운데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올인(all-in)해야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석(定石)이다. 21세기 세계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남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역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스포츠 선교는 일반적인 사역 형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속하고 많은 선교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들은 복음으로부터 단혀져 가는 곳에서는 결코 교회와 신학교 사역들이 불가능하거나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포츠 사역자들은 현지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다.

(1) 신분 확보와 정착이 용이(容易)

현재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아 있는 선교지이자 닫혀 있는 선교 지역들은 대부분 불교권, 회교권, 모슬렘권, 공산권 지역들이다. 그곳은 일반적인 선교사라는 타이틀(title)보다는 스포츠맨이나 체육 지도자라는 직함이 도리어 현장에서 정착하기도 활동하기도 훨씬 더 유리하다. 더더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는 충분히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함으로 실제로 현지에서 이 스포츠 선교사는 신분의 명확성과 함께 정착을 이루는데 참으로 용이하다. 이 스포츠 선교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현지인들의 협조 가운데서 정착의 용이함과 동시에 스포츠라는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

(2) 젊은 계층과의 접촉이 용이(容易)

오늘날 선교 신학의 동향(動向)을 조명해 볼 때 단순히 복음 전파의 의미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 문화권과의 만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것은 지리와 역사, 언어와 민족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문화적 차이가 가져다주는 문제점도 극복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극복의 수단을 ‘접촉점’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언제든지 강력하고도 다이나믹(dynamic)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J.H. Bavinck, 1987: 99).

선교지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들이라 해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 만큼 시간과 정성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많은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스포츠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모두가 좋아하는 교제이자 놀이 문화로서 교두보가 확보되는 만큼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 복음 전함에 있어 매우 큰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까지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

개체이므로 이로 인해서 큰 역사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 제자양육의 효율성

스포츠라는 매개체(媒介體)는 스포츠맨들만의 매력인 집중력, 순수성, 인내력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운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 만나는 장점과 더불어 스승과 제자 간의 강한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는 만큼 제자 훈련이라는 복음의 역사를 한층 더 기대하게 만들어 준다. 늘 함께 만나서 훈련 하고 또 그 이후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느 새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나 무디 같은 한 명의 헌신된 현지인 스포츠 사역자를 바르게 양성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선교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자라서 자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나 나라의 고위 스포츠 관계자, 혹은 사회의 중요한 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한다면 엄청난 선교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자비량(自備糧) 선교가 가능

스포츠 지도자들은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파송 받은 나라에서 일부 자비량(自備糧)도 가능 하다. 스포츠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직함에는 대개 선교사가 아니라 코치나 감독으로서 직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일정한 사례금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여 재생산해 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의 많은 선교사들이 자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 물가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들은 사역비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 때로는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하기도 벅차하는 선교사들 역시 이 스포츠 사역은 훈련을 지도하면서 소정의 회비를 받을 수 있기에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립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 선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전문인 출신 선교사들과 아마추어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본래 선교에 열심을 내던 교회에서도 근래에 와서 스포츠 선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깨닫고 아마추어 중심 단기 선교 팀을 점점 더 많이 내보내고 있다. 선교 전문 단체에서도 스포츠 선교 분야에 엘리트(elite) 스포츠 인들을 전문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선교는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주류(主流)선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세계 선교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 교회들도 “Sports in way”라는 구호를 내걸고 스포츠를 통한 선교 방안 모색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김장환, 1985: 5). 한국 교회는 선교 2세기를 출발하는 선교 전선에 서 있다. 갈수록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강해지는 만큼 우리는 이 스포츠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현실적인지를 기대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 논문은 새천년 선교 시대를 맞이하면서 21세기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복음의 사명 완성을 위한 선교 전략으로서 먼저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전문인 사역 가운데 한 영역인 스포츠 선교 사역과 방향,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신학을 이수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고전적인 사고(私考)에서 탈피(脫皮)해 어느 새 목회자가 아닌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투철한 직업 소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전문 텐트메이커(tent-maker)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의 주 전략(strategy)사역이기도 했던 단독 사역에서 이제는 팀(team)사역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어쩌면 헐리우드(Hollywood)의 유명한 영화 주인공들인 람보나 터미네이터처럼 혼자서 싸우는 소수의 영웅적인 사역자들보다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다양한 사역자들이 한 목적을 갖고 서로서로 깊은 지체의식 속에서 유기적으로 일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안은 목회자 선교사 중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산인 평신도들을 세계 선교 현장에 동원하는 것이다. 특히 복음으로부터 남아 있는 지역들을 향한 주 패러다임(paradigm)은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됨은 거슬릴 수 없는 현실이다. 남은 과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제자도에 기초한 선교적 재생산 구도로 회귀(回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상명령은 곧 “너희는 제자 삼으라(마 28: 19-20)”는 명령인데 제자도의 근간은 출중한 지도자가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있지 않고, 평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또 그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제자들을 낳는(딤후 2: 2) 이른바 승법번식(乘法繁殖)이 진행 되어야 한다.

지난 18-19세기 선교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비어 있는 선교지에 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면, 오늘날 21세기 선교의 난제(難題)로 새롭게 부상(浮上)하는 것은 종종 우리 주변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자원하곤 있지만 갈수록 선교지가 단혀 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흔히 선교학적인 측면(側面)에서 말하는 북위 10/40도에 걸려 있는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마땅히 들어가야 할 남은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입국이 급격히 제한(制限)됨과 동시에 선교사들의 활동 영역이 너무나 제약(制約) 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달려가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을 심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이 태권도를 통한 선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무기이자 축복 그 자체이다.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열방을 넘나들며 영광스런 복음의 씨앗들을 심고, 그래서 즐거이 열매들을 거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이 이 한해, 이 천년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 담긴 밝은 미소(微笑)를 보내어 주실 줄로 확신한다.

이미 사단은 현 시대에도 여지없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하여 3S(Sex, Screen, Sports)를 마치 자기의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다. 원래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만큼 우리는 다시 사단으로부터 찾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귀한 선교의 도구로 정확하게 활용(活用)해야 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 이미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스포츠(Sports)의 순수한 원래의 의미가 아닌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 스포츠(Sports)를 다시 찾아와 바르게 평가하고 제대로 연구 활용(活用)한다면 훌륭한 선교의 도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장에 잘 부합하는 스포츠 선교사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야 한다. 전 세계를 정확히 보는 선교적 안목으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 스포츠 전문인 선교사들을 잘 훈련 시켜 전 열방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선교열매와 꽃을 피우도록 파송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승삼 (1998).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18-119.
- 강신경 (1999). “전문인 선교 시대의 스포츠를 통한 창의적 접근 지역 선교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강승삼 (2007).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선교 포럼 발표.
- 김정설·박관수 (2002). 『건강 길라잡이』. 부산: 효민 출판사. 13.
- 김상복 (1992). 『구소련 선교 핸드북』. 서울: 도서출판 햇불.
- 김혁민 (2006). “외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과 과견.”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 김기환 (2008). “태권도 수련을 통한 기독교 선교 접근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상복 (1990). “축구와 선교.” 할렐루야 축구단 10주년 특집호. 12.
- 김장환 (1985). “귀한 축복 속에서 더 큰 영광을.” 임마누엘 축구단 3주년 특집호. 5.
- 김성욱 (1999). 『하나님의 백성과 선교현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44.
- 김성태 (1994). 『세계 선교 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68.
- 도날드 맥가브란 (1993). 『하나님의 선교 전략』. 이광순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 루스 터커 (1993). 『선교사 열전』. 박해근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423.
- 박성호 (1998). “미전도종족을 위한 선교방안.” 석사학위 논문. 한세대학교 선교대학원. 21.
- 세계체육인선교회 (1997). 『스포츠 선교의 정의』. 서울: 선교타임즈 3월호.
- 서인석 (1997). 『CIS 독립 연합 국가 포인트』. 서울: 한민족 여행사.
- 서정운 (1988). 『교회와 선교』. 서울: 도서 출판두란노.
- 신경규 (2009). 『고신선교 제 5호』. “전문인 선교사 동원전략.” 부산: 고신선교연구소. 153.
- 신성주 (2010). “선교동향.” 제5차 세계선교 전략 회의(NCOWE V).
- 신성휴·한왕택 (1993). 『현대 스포츠론』.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14.
- 송혜룡 (1993). 『스포츠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전예원출판사. 228.
- 스티븐 니일 (1980).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오만규 역. 서울: 성광문화사. 297.
- 이태웅 (1994). 『한국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 해외 선교회 출판부. 76.
- 이중재 (2005). “타 문화권 교회 개척 설립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 이영무 (1991). “스포츠 선교의 효율화 방안 연구” 『체육 선교』 통권 제 26호. 세계체육인 선교회.
- 이덕수 (1991). 『직업 선교』. 서울: IVP. 14.
- 이현정 (1998). “평신도 자비량 선교에 관한 신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77.
- 이혜림 (1998). “전문인선교를 통한 일본 선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14.
- 임승현 외 (2009). 『현대 체육 원리의 이해』.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114.
- 임수택 (2010). 『교회 스포츠』. “주승규 선교사 일본축구 선교사역.” 서울: 쿼란 출판

- 판사. 258.
- 윤동주 (1994). “전문인선교를 통한 한국교회의 미전도 종족 선교전략.” 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5.
- 전천섭 (2001). “터키 전문인 선교전략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9-10.
- 졸저 (1996). 『영국의 엘리트 교육과 애틀레티시즘』. 서울: 21세기교육사. 2장 참조.
- 최호영 (1995) 『기독교선교와 스포츠와의 상관성 연구』. 서울: 장로신학대학교. 37.
- 차원호 (1987). 『지상명령과선교사명』.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0.
- 크리스티 윌슨 (1989). 『현대의 자비량 선교사들』. 김만풍 역. 서울: 순출판사. 23.
- 하남길 (2002). 『체육 원리 강좌 움직임 예술 과학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대한 미디어. 97.
- 하남길 (1999). 『머스큐러 크리스찬: 톰 브라운의 학창 시절』. 서울: 21세기교육사.
- 허버트 케인 (1986).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백인숙 역. 서울: 두란노 서원
- 헨드릭 크레이머 (1963). 『평신도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9.
-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편 (1996). 『한국선교핸드북』.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 헨드릭슨 (1985). 『헨드릭슨주석』. “목회서신.” 서울: 아가페출판사. 205.
- 홍남기 (2008). 『스포츠와 태권도를 통한 선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 논문. 9.
- David B. Barrett and Todd M. Johnson (1998). “Annual Statistical Table on Global Mission: 1998.”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Vol. 22. No. 1. 27.
- John A. Siewert and Edna G. Valdea, eds., *Mission Handbook*(Monrovia: MARC, 1997). 32.
- J. H. Bavinck (1987). 『기독교 선교와 세계 문화』. 권순태역. 서울: 성광문화사. 99.
- Patrick Johnstone (1993). Operatio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29.
- Paul E. Pierson (1998). “Trends in Mission in the 21st Century.”
- Ruth E. Siemens (1999). 『직업 선교』. IVP. 31
- R. J. Schreiter (1985). Constructing Local Theology(Maryknoll: Orbis. Myers 1997:29; Barrett using U.N. statistics giving slightly lower figures, 1999:24-25).
- Wayne Cordeiro (2000). 『팀으로 이끄는 교회』. 김경섭 역. 서울: 도서출판 프리셋트. 190.

ABSTRACT

Study of World Mission Strategy though Sports

Jeong Ki Lee(Kosin University)

In this study,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facing the world mission to evangelize the ends of the earth, instantly spread through sports that require appropriate new mission strategy was presented.

First, the mission of latitude 10 degrees 40 degrees interval where centered the area belonging to the unreached mission field of refusing the missionary entry rapidly despite the difficulties of missionary work in order to achieve continuity of professional missionaries dealt with urgently resistance. In this context, I emphasized actually professional sport missions in the area of mission are very valuable and indispensable tools, because the sports mission is one of the most precious method among the tent-making mission in the nearest neighbor, which covers national, racial, cultural, and language. it is easily accessible from anywhere beyond mission in the medium and form a contact point of the conversation. It can be also used as valuable tool to be make all kinds of people be family during the time of training sports. While addressing mission strategy in this study, at first, I examined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sport and mission. It continues to suggested what is the significance of mission and purpose sports, the direction of sports mission, strategies, and the ripple effects through sports dealt more specifically with secured status settlement, contact with young people, discipleship, tent-maker and the easiness of re-dispatch In the conclusion, I sum up the reasons of more studying and researching about the mission and prospects superiority of the missionary work through sports given the mission of the precious tools of our times for us.

Key Words: sports, mission, Strategies, professional, the Unreached People Group